

## 한국의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가입 40주년(2009년)을 보내면서

이 난 희

(nhlee@ekr.or.kr)

KCID 사무국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기획실 과장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는 물과 환경의 적절한 관리와 관개배수·홍수관리 기술을 통하여, 물과 농지관리 그리고 경지의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해 세계적으로 식량 및 물의 공급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1950년 6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과학 기술 비영리 비정부 국제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1개 국가 위원회를 창립회원국으로 설립된 ICID는 2009년 현재 107개국에 가입하고 있으며, UN경제사회이사회, UNESCO, UNDRP, WMO, FAO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World Bank, UNDP, IPTRID 등과도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ADB, AFDB 등의 지역 은행 및 CIGR, IAHR, IAHS, IWRA, ICOLD, IHA, IWA, EurAgEng, WEC 같은 국제 비정부 기구와도 협력하고 있다. ICID는 또 UATI, WWC, GWP의 창립회원 ISO 기술위원회의 A급 자문기관이며, 13개 국제 물관련 기관인 IWALC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1969년에 토지개량조합연합회가 한국 국가 위원회로서 가입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ICID 정관에 각 국의 관개배수 관련기관이 가입할 수도 있으며,

국가위원회를 조직해서 가입할 수도 있다는 조항에 따라 때문에 당시 한국 관개배수사업을 담당하던 토지개량조합연합회(역사상으로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청했다. 그런데 가입승인은 1970년 7월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ICID 21차 집행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신청시기를 고려하여 1969년부터 소급 가입을 시켜 ICID 5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가입을 결정하는 회의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가입 동기는 1969년 인도주재 한국영사가 뉴델리에 위치한 ICID에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외무부에 요청하였고, 외무부는 이를 농림부로 이첩하고 농림부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에 보내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국제적인 단체 가입도 남북한이 외교경쟁의 일환으로 다루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입의결에도 소련, 유고,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등 5개 공산국이 기권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회원국이 된 후 사무국은 농업진흥공사(1970년 토지개량조합연합회가 농업진흥공사로 개편) 농공시험소에 두고, 회장은 농업진흥공사 사장,

사무국장은 농공시험소장이 담당하였다. 이 때부터 1979년까지 10년간은 공문서를 받고 응신을 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였고 국제회의 참석도 드문시기였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후에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ICID 본부 건물의 건축을 위해 각 회원국이 각국의 관개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부담시켜 우리나라도 배당된 금액을 지불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1979년은 당시 농업진흥공사의 임영춘 부사장이 ICID 부회장에 출마하고 모로코의 라바트에서 개최된 ICID 제30차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필리핀의 공공사업, 교통 및 통신 장관인 Alfredo L. Junio와 아시아 지역 담당인 부회장 경합이 되어 다음 기회를 약속 받고 양보하였다.

국가위원회의 설립 및 활성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귀국한 임영춘 부사장은 1980년 2월에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한국위원회를 설립하고 회장이 되었으며, 부회장은 농림부 오완수 국장, 사무국장은 농업토목시험연구소장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ICID에 애정을 가졌던 임영춘 부사장이 1980년 7월에 농업진흥공사에서 퇴임하고 이어서 한국위원회 회장직도 사퇴함에 따라 ICID 한국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에 1982년 4월에 제2차 정기총회에서 이예민 농업진흥공사 부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하여 활성화를 꾀했지만 그도 1983년 5월에 퇴임함으로써 그 후 ICID 한국위원회는 회장이 없이 사무국장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다시 10년 세월이 지난 1992년 6월 13일 사단법인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 창립총회를 열고 1992년 10월 5일 농수산부장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는 당시 농수산부 유근학 국장을 중심으로 1991년 11월 12일의 한국관개배수위원회 발기위원회 이래 반년이 넘는 기간의 준비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유근학·이중기·엄태영·권순국·박재룡등 다섯 명의 부회장을 선임하였으며, 사무국은 안산의 농어촌연구원에 두었다.

KCID의 활동은 1993년에 농업진흥공사 사장과 한국관개배수위원회 회장으로 취임한 조홍래 회장의 열정으로 활성화 되었다. 1993년에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44차 집행위원회에서 유근학 부회장이 ICID 부회장으로 당선되었고, 2000년에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51차 집행위원회에서 권순국 부회장, 2004년에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55차 집행위원회에서 허유만 회장이 각각 ICID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2001년에 ICID 제52차 집행위원회 및 제1차 아시아지역회의를 한국에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아 ICID로부터 2002년 캐나다의 몬트리올 제18차 총회에서 제1회 최우수국가위원회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01년 집행위원회에서 KCID가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Tidal Areas (WG-SDTA)의 설치를 제안하여 박상현 박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2009년 현재까지 본 Working Group을 이끌어오고 있는 것도 특기할만한 일이다.

2001년의 서울회의 유치는 조홍래 회장이 참석한 네덜란드의 헤이그 회의에서 회장의 즉석 결정으로 처음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마침 인도네시아가 1998년의 제49차 집행위원회의를 이미 신청하여 회의석상에서 ICID 회장이 한국의 양보를 요청해 수락하고 그 후 공식적인 신청과 회의 때 마다 유치 홍보활동을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경합하여 근소한 차이로 투표에서 승리의 쾌거를 맛보기도 하였다.

한국이 1969년에 ICID에 가입한 후 40년간을 뒤돌아볼 때, 1969년에서 1992년까지 23년간은 활동이 미미하였던 시절이었고, ICID 한국위원회를 설립했던 1980년 초부터 새로운 날개를 펴려 했으나 시대적 환경 때문에 접어야 했으며, 1993년부터 2001년까지 9년간은 “ICID 서울대회 개최” 라는 커다란 목표가 있어 큰 발전을 이룬 계기가 되었다.

현재 KCID는 ICID의 국제회의 참석은 물론이고 세계 물의 날 행사(WWD), World Water Forum(WWF) 참가, 논농업 지역에서의 물, 환경 국제네트워크(INWEPP)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물관련 국제교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발간사업도 꾸준히 연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더듬어보면서 그 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해 보면 한국위원회 회장으로는 임영춘, 이예민 회장, KCID 회장으로는 김영진 · 조흥래 · 허유만 · 안종운 · 임수진 · 홍문표 회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KCID의 경우 김주창 · 임병호 · 정병호 · 박상현 · 김채수 · 어대수 · 조진훈 이사, 사무국장으로는 한국위원회의 경우 여운철 · 신상혁 · 황경구 이사 · 김주창 · 신일선 국장, KCID의 경우 허남조 · 김대년 · 어대수 · 필자로 이어지고 있다.

2009년 현재 KCID는 새 역사를 꿈꾸고 있다. 2014년 2001년의 서울대회의 영광을 재현하고, 국내 물 관련 전문가들의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ICID 제22차 총회 및 제65차 집행위원회의” 개최를 유치하고자 이사회와 승인과 제17차 정기총회(2008. 2. 21)에서 모든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유치 결정을 하게 되었다.

2009년말, ICID가입 40주년을 보내면서 그 동안 KCID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각 단체 회원사,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KCID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본다.

